

한국어의 품사

Корей тіліндегі сөз
таптары. Өзгертін, өзге
рмейтін сөз таптары

Сәдір Бибінұр

체언

Өзгермейтін сөз таптары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되는 낱말.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포함한다.

1. 명사 Зат есім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이 되는 말.
Заттың немесе адамның атауы. Кім ? Не? деген сұрақтар қойылады.



2.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쓸 수 있는 말.

•인칭대명사/사람대이름씨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여느 나라의 인칭대명사와 같이 1인칭, 2인칭, 3인칭과 부정칭이 존재한다.

•지시대명사/가리킴대이름씨

사물이나 처소 따위를 이르는 대명사이다.

말하는 이, 듣는 이와 대상 사이의 거리에 따라 나눈 이/그/저 세 개의 지시사와, 잘 모르거나 지칭하지 않는 의문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수사

수사가 명사와 비슷하게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이 되는 경우는 ("거기 몇이나 왔어?" / "하나밖에 없습니다." / "사에 삼을 더하면 칠이 된다." /) 다른 언어에서는 찾아보기 매우 힘든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수사를 독립된 품사로 보고 체언에 배속시킨다. '수관형사'와 헷갈릴 수 있지만 수사는 체언이고 수 관형사는 수식언에 속하는 관형사이므로 잘 생각해 보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다. 예컨대 "열을 세겠다."의 열은 목적어로 쓰인 수사이고, "열 살입니다."의 열은 의존 명사 '살'을 수식하는 수 관형사이다.

용언 Өзгөргөтін сөйлөм мүшелері

문장 안에서 서술어 구실을 하는 낱말들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돌아 버리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다.

문법 상황에 따라서 어미를 자유자재로 갈아끼는
'활용'을 할 수 있으며, 용언이라는 이름은 활용을
할 수 있는 언어라는 뜻으로 붙여진 것이다.

동사 Eticтіктер

'움직씨'라는 고유어 이름대로, 주어의 동작을 서술하는 낱말 부류이다.

한국어는 동사가 형용사와 비슷하게 행동하며 개방 부류를 이룬다. 사실 한국어는 전통적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기에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영어의 형용사와 달리 문장의 서술어가 될 수 있고, 활용 어미가 붙는 점으로 동사와 비슷하고, 서술격 조사와도 비슷하다.

넓은 의미로 형용사를 포함하여 ‘동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원리적으로 국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지 않고 동사를
동작동사, 형용사를 상태동사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로서의
‘동사’는 용언이나 서술어라는 것과 그 의미가 같다.

좁은 의미로는 형용사와 구별되는 의미나 기능 또는 형태론적인 특징을
가지는 용언만을 동사라고 한다. 형용사는 선어말 형태 ‘·느·’를
가지기 어려운 데 대하여, 동사는 자유롭게 ‘·느·’를 가질 수 있으며,
형용사는 목적의 연결어미 ‘·으러’의 연결이 제약되는 데 대하여
동사의 경우에는 비교적 그렇지 않고, 형용사는
명령법·청유법·약속법·허락법의 어미를 가지기 어려운 데 대하여
동사는 그러한 어미의 연결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진다.

형용사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나 속성을 설명하는 낱말 부류이다.

이따금 어떤 학자들은 한국어의 형용사가 계사(copula) 없이 서술어 기능을 하므로 동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형용사라는 용어를 폐지하고(혹은 관형사를 형용사로 개명하고) 대신 '형용동사'나 '상태동사'라고 부르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지나친 영어중심주의 사고의 산물일 우려가 있다. 형용사가 동사와 비슷한 속성을 지니는 언어는 한국어 말고도 많기 때문이다.

